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10월 19일 (제 1328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고운 모래가 되리라

‘오 모래여 오 모래여 내 사랑 모래여/ 나만 이 아는 당신의 희생의 사랑에 할 말을 잊 었다오/ 이것의 파도의 고백이라도/ 당신 의 모래, 나는 파도/ 당신은 배요 나는 노 라오/ 우리는 예수가 맺어주신 영원한 천 생연분이라도/ 오 사랑 오 사랑 우리는 사 랑뿐이라도/ 지치고 상한 몸 안식이 있다 면 오직 당신의 품이라도/ 영원히 당신만 을 당신만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목회 초,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세차게 밀 려드는 파도를 품에 안는 모래를 보며 지 은 시다. ‘나도 주님처럼 모래 같은 자가 되어 거친 파도도 잠재우고 안아보리라’는 큰 뜻이 있었다.

목회 40여 년, 나는 이제 입자가 커서 거칠 거칠한 모래가 아닌 입자가 곱디 고운 모 래가 되려고 한다. 모래가 고을수록 모래 위를 걷는 자들의 발이 편하지 않겠나. 나 로 인하여 누군가 더욱 편해진다면 고운 모래로 능히 살 수 있으리라.

또한 모래가 고을수록 밀려오는 파도를 더 꾀옥 감싸고 품을 수 있다. 세파에 시달린 자들을 품고, 파도처럼 노를 발하는 자들 을 품고, 지친 자들을 품고, 병든 자들을 품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더욱 꾀옥 품으리라.

고운 모래는 시멘트와 섞여 벽을 미장하는 데 사용된다더라.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사 회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나는 거친 시멘 트 같은 사람, 나를 헐뜯는 사람도 용납하 고 하나가 되리라.

그러나 고운 모래가 그냥 될까? 더 바람 에 깎여야 하고, 더 풍파를 견뎌야지. 내가 가진 것들이 더 깎여 나가는 아픔을 견뎌 야지.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 아... 더 낮아져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용서해야 하고... 그 래서 고운 모래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나는 곱디 고운 모래가 되리라. 우 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 용서하고, 우 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 리 주님의 우리를 품에 안 듯 나도 그리 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 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 이 쉼을 얻으리니”(마11:29).

하나님께 기억되는 작품을 남기자

지난 2006년 멕시코(Mexico) 메리다 (Mérida) 집회. 2시간 가까이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들어오자 그 커다란 운동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 그 장면에 압도적인 웅장함을 느꼈고, 메리다 집회 는 중남미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던 집회로 기록되어있다.

이번 군산집회에도 그러한 감동을 느꼈 다. 군산예수중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축복 목사님이 이번 집회를 어떤 자세 와 각오로 준비해왔는지 알고 있기에, 준 비찬양이 끝나갈 무렵, 체육관에 끊임없 이 들어오는 인파로 월명체육관이 가득 채워져 가는 장면은 가슴을 울격하게 하 는 진한 감동이었다.

전날 저녁부터 계속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새 멈추지 않았고, 집회 당일인 10월 3 일 오전 내내 계속 퍼부어댔다. 비록 실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항 력인 것이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다는 말처럼 솔직한 고백이 어디 있 을까?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체육관은 행하니 비어있었고, 수도권에서 오는 차 량들은 명절 연휴 첫날에 비까지 속절없 이 내리니 이동 속도가 몹시 더디다는 이 야기만 계속 들려왔다.

그런데 2시가 넘어 찬양이 시작되고 한 30분이 지났을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다는데, 체육관 각 출입구를 통해 사람 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다. 찬양팀 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급기야 체육관이 인파로 가득 차 는 장관이 펼쳐졌다. 가슴에서 울격하며 감사와 감동이 전율처럼 가슴과 등을 타 고 내렸다. 그동안 교단의 모든 주의 종 들과 성도들이 군산집회를 위해 마음을

룩한 모험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우리는 무수한 실상들을 직접 경험했고, 영상으로 확인해왔다. 또한 목사님이 70 대 중반의 연세에도 그러한 도전을 멈추 지 않으시는 것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단 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내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가기를 바라 시기 때문이다.

이번 군산집회를 통해 교단의 주의 종들 이 자신감을 얻고, 나도 해보겠다, 나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작품을 남기고 싶다 는 도전과 의욕이 샘솟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내 집회를 통해 긍지와 자부심으로 교단이 결속하고 믿음이, 자신감이 커지 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 온 성도들의 응원과 열의가 교단적 자부



2025 군산 전도집회(10월 3일, 군산 월명체육관)

내에서 진행되는 집회라 해도 쏟아지는 비는 체육관으로 향하려 했던 발걸음들 을 머뭇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몹시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날 세팅은 마쳤지만, 일찌감치 체육관 에 도착하여 점검하고 있는데, 김축복 목 사님이 나타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 다. “오전 내내 울었습니다.” 더 길게 애 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격한 공감과 함께 그 책임감의 무게가 무겁게 전해졌 다.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해도 날씨까지

함해 기도한 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결실 로 나타나는 실상이기에, 그리고 군산교 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한 노 력이 보상받는 순간이기에 더욱 감동이 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도와 도전을 통 해 이러한 기쁨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 의 주옥같은 말씀도 우리가 실제 현실에 적용하여 성취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이 없다. 목사님이 목회 40년을 지나오 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시도하고 도전했던 거

심을 더욱 고양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감 사와 은혜로 뿌듯하게 한 하루였다. 특별 히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 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된 간증들이 누룩이 부풀 듯 군산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군산집회를 위해 기도와 후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 립니다.

한은택 목사



예배 후 병자들을 안수해주셨다



군산예수중심교회 김축복 목사



월명체육관을 가득 메운 성도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4:16~24)

기회 있을 때 주의 일 하자

10월 3일, 모두가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고 들며 미리 계획한 대로 여행을 떠나고 고향을 찾을 때, 그들과 달리 군산으로 몰려든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군산 월명체육관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산 집회가 군산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이는 예수중심교단의 일이고,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라고 생각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참석한 것입니다. 더욱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여 버스까지 대절했으니 군산 월명체육관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월명체육관이 가득 찬 것을 보니 저는 몹시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쁘고 감사했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날 상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집안에 큰 잔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자식들이 잔치 비용에 보태라고 돈도 내놓고, 회사에 월차를 내고 미리 와서 이것저것을 챙기고 돕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든든할까요? 그런데 돕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님은 섭섭함을 넘어 '패섬한 놈', 그럴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는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청한 자들이 '나는 밭을 샀으매',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나는 장가 들었으니'라며 못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격노했지요. "그래? 안 온다고?" 하고는 주인은 하인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눅14:21)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길과 산을가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칫집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군산 집회에도 초청했으나 안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나몰라라 한 자도 있을 것이고, '명절 첫날이라 차가 억수로 막혀. 너도 가지 마.'하며 자신도 안 갈뿐더러 가려는 사람도 못가게 한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군산 집회가 무산됐습니까? 군산 집회가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청한 자들이 안 와도 잔치가 성대히 끝난 것처럼, 당신이 안 와도 군산 집회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안 온 당신만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 당부하건대 주인이 잔치를 베풀 거들랑, 더욱이 천국 잔치가 열리거들랑

이유 불분하고 무조건 달려가세요. 달려갈뿐더러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안 믿던 자들을 전도해서 가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일당으로 사서라도 가야 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강제로 끌고 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 돈을 주고라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문

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히9:27). 그때 어린양 예수님이 아닌 심판주 되신 예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넌 뭐하다 왔느냐?" 물으실 것인데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저기~~ 음~~" 이렇게 우물쭈물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님이 '악하고 게을렀구나.' 하실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요?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군산 집회 때 5명 전도해서 같이 갔습니다.", "주님, 제가 버스 한 대 채웠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원 집회 때 돼지 한 마리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차를 담당했습니다.", "주님, 저는 늙어 기력도 없어서 기도만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천국 잔치가 배설되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충성되어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인색해서도, 난색을 표해서도 안 됩니다.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한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내미실 때가 우리에게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그때 적극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육체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지식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얹어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손을 내밀어주심에 무한 감사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예수께서 열매를 달라하실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건넌마을 어린 나귀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자

신을 내어놓아 나귀가 사람이 벗어 놓은 옷가지 위를 걸었고, '호산나' 찬미 소리를 들었 습 니 다. 주 님 이

원 하 실 때 내어놓는 것이 이렇듯 복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꿈에 제가 피곤해서 좀 누워있었더니 주님이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하시고 나가버리셨다고요. 맞습니다. 이초석이 없으면 지구촌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을까요? 천천만만입니다. 모세가 끝내 못하겠다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론을 들어서라도 출애굽의 대역사는 이루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윗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개도 에스더에게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에4:14)?

주만 위해 살면, 주님 위주로, 주님을 우선으로 살면 나는 없고, 내 생활을 얻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하셨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살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 땅의 것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말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8)는 말씀이 내세에 꼭 이뤄집니다. 제가 샘플 아닙니까.

성경에는 '행한 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행한 대로'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롬2:6). 우리의 앓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할 뿐 아니라 다 기록해 두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계20:12). 그랬다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16:27)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지 마세요. 어린 나귀도 다 쓸모가 있었고, 과부 두렘돈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이를 무엇보다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일랑 묶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 이 기회요 지금 이 은혜받을 때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8). 주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제일 잘 산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8)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천국 잔치를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이때 괜히 이리저리 걸돌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세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과 성과 목숨을 다해 준비하세요. 그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보상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곧 옵니다. 일할 수 없는 지금, 기회가 주어진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찬양과 경배 ::

시냇물이 강물 된다

어느 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눈이 내렸다. 온 천지가 아름답게 눈으로 덮였다. 그때 새 두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한 새가 하는 소리가 “눈 한 송이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자, 다른 새가 “글쎄...”라고 답했다. 그때 살짝 작은 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눈 한 송이가 그 골짜기에서 가장 큰 거목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거목이 우지직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두 동강이 나는 것이다. 눈송이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눈송이가 쌓이고, 어느 순간이 되니 그 큰 거목도 견디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나버린 것이다. 이처럼 믿음과 의가 쌓이면 축복이 될 것이요, 죄와 악이 쌓이면 재앙이 될 것이다. 내가 전도사로 임명 받았을 때, 인천교회 담임이셨던 박영철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도시간에 기도할 때 5분 먼저 기도하거나 기도가 끝나고 5분을 더 기도하면 그게 별 게 아닐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다.” 또 이시대 목사님이 인천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 전도사인 우리에게 “기도는 부르짖어야 하고, 피곤하다고 졸지 말라. 졸면 습관이 되어서 기도 시간에 잠만 자는 사람이 된다. 눈을 뜨고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에게는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있다. 너희들도 그 친구들과 함께하

라.” 하셨다. 맞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여 가다 보면 도착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11절에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다.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 이후에도 말씀을 좇아 행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런 풍족함으로 아브라함은 롯과 나누어지게 된다(창13:5~13). 그 후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둘의 결과는 어떠한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은 아내와 사위는 멸망을 하고 두 딸과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믿음과 선은 결국 이루어진다. 반대로 불신앙도 죄와 악도 결국은 이루어진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8~9).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자, 주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장영국 목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최근 주일 3부예배 설교 시작 전, 교육부에서 순차적으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대학부 워십팀인 아도나이가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저 단에서 춤을 췄었는데, 지금은 내가 전도사가 되어 있다니...’ 사실 그렇게 춤을 출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전도사가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 다. 2025년, ‘전대미문의 복을 받자’ 하셨는데, 저야말로 정말 너무 큰 축복을 받았습니 다. 제가 해온 것들이, 살아온 인생이 전도사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제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러

나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율타리 안에서 그 인도하심 따라 제 인생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해주시니 저는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 오래 산 삶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제게 맡겨진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저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엡1:4~5), 그 계획하심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윤예녹 전도사

추계산상집회

- * 날짜 : 2025년 11월 3일(월)~6일(목)
-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 문의 : 02. 533. 9191

:: 간중 ::

군산전도집회는 제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군산전도집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집회였음을 먼저 시인하고,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부산집회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도 군산집회 해라. 전에 군산에서 집회했을 때는 월명체육관이 차고 넘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나도 해보리라!’ 그때부터 전도서의 말씀처럼 때를 기다리며 전도 집회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했더니, 마침내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의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작년에 전주집회를 마치고 총회장 목사

님께서 ‘군산집회를 하라’고 하셔서 ‘아멘’ 했습니다. 전주예수중심교회 박청직 목사님도 ‘다음에는 군산집회 차례’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니 그날따라 집회를 하고자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목사님, 군산집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꿈을 몇 번 쫓았는데, 체육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숨을 못 쉴 정도여서 꿈속에서도 감사해서 평평 울었습니다. ‘그래, 전쟁은 이겨놓고 하고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지.’ 다짐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내가 네 후원자가 되고, 꿈대로 해줄게.”라고 저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회장소를 찾았으나 가는 곳마다 종교행사는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와 작정기도를 하고 여리고를 돌 듯 월명체육관을 돌고 다시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몇 번을 찾아가도 안 된다고 하던 체육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6월 10일, 집회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전화하셔서 “그날은 아니다. 내가 가 볼게.”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체육관을 보시고는 만족해하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사실은 10월 3일 놓고 기도했습니다.”라고 고백하자 목사님께서 오케이 하셔서 집회날짜가 10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육관 측에서 10월 3일은 공휴일이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겠습니까. 또 작정기도하고 여리고를 돌 듯 돌았지요. 그리고 담당자를 찾아가 강청했더니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기적을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주십니다. 사실 군산교회 성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독려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작정기도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광고에 주력했습니다. 현수막, 전단지, 물티슈, 또한 9일 동안 LED 탑차 2대로 광고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물티슈와 두유와 떡을

돌리면서 거리로, 복지관으로, 경로당으로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꾀박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더니 우리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열어 모두 다 집회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 10대를 채웠습니다.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원근각처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물질로, 전도로, 헌신봉사로 힘써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 군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생일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제 꿈대로 군산 월명체육관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의 적은 인원으로 큰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전도집회가 계기가 되어 우리 교단이 부흥되고, 각 지역마다 전도집회가 배설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군산 전도집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군산예수중심교회 김축복 목사

:: 중국에서 온 편지 ::

예수중심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한국에 여러 번 왔었지만, 이번 여정은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빈 마음으로 예수중심교회에 왔지만, 가득한 은혜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중심교회를 통해 저를 환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저를 특별히 만나주시고 기도해주신 이초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교사 위 선생님(어윤석)과 두 통역사 오 선생님, 한나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 모녀의 섬김과 환대와 동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큰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중심교회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처음에는 단순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중심교회에 왔지만 이초석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만나주시고, 주일예배 후에는 식사 초대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 놀랍고 꿈만 같았습니다. 이전의 사역들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감동되고 기뻐서 사흘 밤을 설칠 정도로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초석 목사님과 식사할 때 목사님의 말씀이 제 내면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속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사님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모교단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세 번이나 크게 상처를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제게 세 번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일예배 때 저를 회중 앞에 세

우셨고, 두 번째는 군산집회 때 다시 회중 앞에 세우셨으며, 세 번째는 주일예배 때 또다시 회중 앞에 세우셔서 저를 환영해주셨습니다.

이 세 번의 '일어섬'을 통해 저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처음 노량진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이시대 목사님을 뵈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사랑으로 권면해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눈빛에서 맑고 따뜻한 사랑과 온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시고 특별히 사랑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고, 동시에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과 나의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교하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떠올라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두 번째로 노량진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흘러나오고, 방언으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은혜는, 마지막 수요일예배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마치 보좌 앞에서 강물 같은 생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초석 목사님께서 단상에서 두 손을 들고 계셨는데, 그날의 설교 말씀과 기도, 모두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로 밀려왔습니다.

예배 후 숙소로 돌아갔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30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모금조차 마시지 않았는데도 입안이 마르지 않았고, 기도 중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초석 목사님께 주신 그 넓은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중심에 서서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넓혀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영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방언으로 귀신을 쫓으며 번갈아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러갔고, 긴 시간 기도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상쾌해졌습니다.

이런 기도를 나는 수년 동안 동경해왔지만, 어떤 부흥집회에서도, 어떤 사역에서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중심교회에 와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위 선교사님과 통역사 자매들이 '예수중심교회 목사님들은 하루 4시간씩, 이초석 목사님은 6~7시간씩, 때로는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 보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은혜를 쉽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단 1주일 만ですよ.

왜 이렇게 예수중심교회에서는 긴 시간 동안 기도가 가능한지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이초석 목사님을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당연히 기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오면 기도의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다시 기도했을 때, 전날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은혜는, 금요일에 출국하려고 공항에 도착한 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이 없던 한 성도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헌금을 하고 싶다며 저의 은행계좌로 1만 위안(한화 약 2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이초석 목사님께 선교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두 배로 즉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고 또 하나 받은 감동이 있는데, 그전까지 엄두도 못낼 감히 상상도 못했던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초석 목사님을 모시고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군산집회 같은 대규모 전도대회를 열어 중국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번 이초석 목사님과의 만남, 예수중심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맞는 교회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웨이(常伟) 목사

:: 참된 깨달음 ::

참된 섬김의 길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참여이자 참된 섬김이다.

참된 섬김의 출발은 겸손한 자세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에 인간적인 마음을 개입시켜 다른 성도나 직분자의 자격과 능력을 평가하려는 마음을 품곤 한다. 이러한 태도는 섬김의 본질을 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된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가 교만임을 경고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사역을 평가하거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때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불만을 품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잣대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잘하고 못함을 가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만족이나 인정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목회자의 리더십이나 결정에 대한 불만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차이를 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은 우리 자신의 영적 유익과 믿음의 행위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없으니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성경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 가르친다. 세상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셨다. 예수님도 스스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가치의 전복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부름 받았다. 각자의 역할과 은사는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돕는다'는 태도를 넘어, '함께 세워간다'는 동역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참된 섬김의 길이다.

양은정 생도

멈추지 않는구나 -봉우

옛 어른들 세월 이길 장사없다
잡으로 진리 중 진리다
세월을 요리할 자크 누군가
네 나이 70 고학(古學)라
아~이 세월 참 빠르구나
이제!
모든 일 심사숙고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지
혹시나 노욕에 주님 맘 아프게 할라 속심내지 말자

남의 맘 아프게 말고
병들고 기난 속에 울며 길 찾는 의로운 자 벗 되며
물줄기 석막에 꽃 피우고
산천조목 살리며 바닥 짚아 웃으며 가듯이
네 고향 천국 향해 이웃과 웃으며
손잡고 벗 삼아 가자꾸나, 조석아~~
이것이 선한 목자 길 아니겠나
무엇을 더 버리리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다

월드 프레이즈 찬양 집회

장소: 노량진 교육관
날짜: 2025년 11월 1일(토)
오후 2시
문의: 02. 533. 9191